

# 아버지의 미취학자녀 돌봄시간 변화 추이 분석(2004-2019)\*

Trend in Paternal Childcare Time for Preschool Children in Korea from 2004 to 2019

울지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강사 이정은\*\*  
방송통신대학교 생활과학부  
교수 서지원\*\*\*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Eulji University

Lecturer Lee, Jung-eun

Dept. Division of Human Ecology,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Professor Seo, Jiwon

## 〈목 차〉

I. 서론	IV. 연구결과
II. 선행연구 고찰	V. 요약 및 결론
III. 연구방법	참고문헌

## 〈초록〉

본 연구는 맞벌이와 외벌이 아버지의 미취학자녀 돌봄시간의 변화를 파악하고 아버지의 자녀돌봄 활동의 특성 변화를 규명하기 위하여 돌봄의 하위활동영역을 각각 필수돌봄, 발달돌봄, 기타돌봄으로 분류하였다. 이를 위해 통계청 생활시간조사자료 중 2004, 2009, 2014, 2019년의 4개 연도 15년간의 자료를 사용하여 평일(근무일)의 아버지 자녀돌봄시간과 참여율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가 미취학자녀를 돌보는 시간은 증가 추이를 나타냈다. 특히, 맞벌이 아버지는 2004년과 비교하여 2019년에 자녀돌봄시간이 24분 증가하여 15년 동안 2배 가량의 증가를 보였다. 둘째, 아버지의 돌봄유형을 분석한 결과, 2004년에는 생존과 직결되지 않고 간헐적 참여가 가능한 발달돌봄 참여율이 자녀의 생존과 건강유지를 위한 필수돌봄에 참여율보다 적었으나, 2019년에는 외벌이 아버지는 필수돌봄과 발달돌봄 참여율이 유사하였고, 맞벌이 아버지는 필수돌봄 참여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셋째, 아버지의 자녀돌봄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는 아버지의 연령, 교육수준, 성평등의식, 시장노동시간, 출퇴근시간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특히, 시장노동시간은 모든 조사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으며, 성평등의식은 외벌이 아버지 집단에서 최근까지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맞벌이 아버지와 외벌이 아버지 모두 자녀돌봄시간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특히 발달돌봄뿐 아니라 필수돌봄에 사용하는 시간이 늘어났다는 점에서 부모의 공동양육 책임이 실현되는 방향으로의 긍정적 변화를 시사한다. 또한, 이는 지난 15년간의 아버지 자녀돌봄 행태의 변화에 대한 이해를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며, 향후 가족친화 정책의 구체적 과제를 제안하고 지역사회 등에서 아버지 대상 자녀돌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맞벌이 아버지, 외벌이 아버지, 아버지 돌봄, 자녀돌봄시간, 필수돌봄, 발달돌봄

## 〈Abstract〉

Recently, the importance of the fathers role in the care of young children has been emphasized in Korea for the balance of childcare responsibilities between mothers and father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trends in paternal childcare in Korea over the last 15 years. Childcare is divided into primary and developmental care and

\*본 연구는 2021 가정학분야 춘계공동학술대회 포스터 발표한 논문임.

\*\*주저자: 이정은(jia22@naver.com), <https://orcid.org/0000-0003-4105-2600>

\*\*\*교신저자: 서지원(jwseo@hanmail.net), <https://orcid.org/0000-0002-8012-8252>

fathers's Childcare time and participation rates are investigated for dual- and single-income households. Data are collected from the four waves of the five-yearly Statistics of Korea Life Time Surveys between 2004( $t_1$ ) and 2019( $t_4$ ) including the workday time diaries of fathers with preschool children( $n_1=2,264$ ,  $n_2=1,242$ ,  $n_3=959$ ,  $n_4=952$ ). Three major results are identified. First, paternal childcare time and participation rates have increased with dual-income fathers spending 24 more minutes a day with their young child(ren) in 2019 than in 2004, which is nearly double. Second, in the analysis of fathers' childcare time use and participation rates comparing primary and developmental care, primary care is found to have increased more than developmental care, especially among dual income fathers: this further exhibits a reversed relation between primary and developmental care over time. Third, the determinants of paternal childcare time are fathers' age, market labor time, commuting time,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and education. In particular, market labor time was significant in all four waves, while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is only significant for single-income fathers. Based on these results, a specific agenda is provided for family-friendly policies to improve the balance of childcare roles between fathers and mothers, especially encouraging increased(significant and sufficient) participation of fathers in primary care activities.

**Key Words:** dual-income fathers, single-income fathers, paternal childcare, primary care, developmental care

## I. 서론

한국 사회는 저출산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어머니의 자녀돌봄 부담이 아버지의 역할에 비해 과중하다는 것을 지적될 만큼 아버지 역할의 부재현상이 심각하다고 진단된다. 최근 아버지의 자녀돌봄 참여가 더욱 증진되어야 할 필요성은 이와 같은 가정 내에서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돌봄책임의 불균형성 차원 뿐 아니라 아버지 자신의 '일-생활 균형'의 관점에서도 중요하게 제기된다. 맞벌이가정의 증가에 따라 부모의 공동양육 필요성이 더 절실하게 강조되고 그에 따른 새로운 '아버지상'이 요구되고 있으나(송혜림 외, 2010), 여전히 많은 가정에서 자녀돌봄의 주된 책임은 어머니에게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실제로도 자녀돌봄의 상당한 부분이 어머니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간 아버지의 자녀돌봄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과 '건강가정기본계획' 등 다양한 범정부적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여 왔다. 이러한 정책시행의 결실이라고만 단언하기 어려운 측면은 있으나, 사회전반적인 인식의 향상과 함께 최근의 연구결과를 보면 여전히 어머니에게 지워진 돌봄부담이 절대적으로 크다는 문제가 남아 있음에도, 대체로는 최근 들어 아버지의 자녀돌봄이 약간이나마 점차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와 달라지고 있는 아버지의 자녀돌봄 행태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단기적 관점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아버지의 자녀돌봄 참여행태에서 나타나는 특성의 차이를 분석하고 아버지의 자녀돌봄 참여 영향변수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떠한 변화상을 보이는지를 면밀하게 규명할 필요성이 있다 하겠다.

지금까지 시간사용의 측면에서 아버지의 자녀돌봄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녀돌봄에 사용한 시간의 총량을 성별로 비교 분석한 결과, 아버지의 돌봄참여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김나영, 2017; 김진옥·권진, 2017). 다만 돌봄시간 사용량에만 주목하게 되면 세부적인 돌봄의 활동영역별로 차이가 있는 노동강도, 활동빈도 등 돌봄노동으로서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를 얻기는 어렵다. 이러한 연유로 여전히 우리사회에서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높은 양육스트레스가 지속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다. 실제로 아버지의 돌봄활동은 대부분 자녀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이고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책임성 높은 활동보다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놀아주기나 책 읽어주기 등 상대적으로 책임성이 낮은 활동이 더 많은데, 이를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시간사용량의 증가만으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부모 공동돌봄이 실현되었다고 평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하겠다.

또 다른 관점에서 여러 선행연구(김은수, 2019; 유지영, 2017; Schope-Sullivan et al., 2008; Van Egeren & Hawkins, 2004)에서는 자녀돌봄 책임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부모가 자녀돌봄 책임을 공유할 때 자녀는 정서적으로 더 안정감을 가지며 적응적인 또래관계를 형성하게 된다(Eisenberg & Spinard., 2006; Mangelsdorf, Laxman, & Jessee, 2011)는 점에서 아버지의 돌봄참여는 자녀의 발달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아버지의 자녀돌봄에 대한 적극적 참여가 중요함에도, 우리사회는 여전히 아버지를 주양육자로 인정하거나 아버지에게 적극적인 양육을 기대하기보다는 시간될 때 양육에 도움을 주는 'Helper' 역할을 강조하는 듯하다. 이러한 점은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아버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내용을 살펴보면, 자녀와 놀아주는 방법,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 스포츠활동이나 신체놀이를 하는 방법 등 자녀돌봄에 책임감을 강조되

는 양육활동보다는 간헐적이고 일시적으로 참여하여 발달을 촉진하는 놀이활동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는 실정에 반영되어 있다. 향후에는 이와 같은 소극적이고 간접적인 돌봄의 역할에 국한된 아버지교육프로그램의 한계를 극복하고, 맞벌이 가정 증가와 아버지 역할 기대에 대한 사회적 변화에 맞추어 아버지 교육 프로그램 기획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부모공동의 자녀돌봄 참여와 책임감의 공유를 촉진하기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자녀 자녀를 돌보는 데 사용한 시간의 단순합계와 참여율 자체만을 정책지표로 삼지 않고, 아버지의 자녀돌봄이 어떠한 세부적 유형의 활동으로 구성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아버지 자녀돌봄에서의 불균형하거나 부족한 활동을 규명하고 보다 균형있고 충실한 돌봄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매 5년 간격으로 국민의 생활시간자료를 축적해 온 통계청 생활시간자료 중 2004년부터 2019년에 이르는 4차시의 자료를 비교분석하여 미취학자녀를 둔 맞벌이 아버지와 외벌이 아버지의 자녀돌봄 시간과 참여율, 참여활동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지난 15년간 아버지의 미취학자녀 돌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향후 자녀돌봄 관련 가족정책 과제와 아버지교육 프로그램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고 구체적인 요소를 제안하고자 한다.

## II. 선행연구 고찰

### 1. 자녀돌봄의 의의와 행동유형 분류

#### 1) 자녀돌봄의 의의

부모의 양육행동은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라 변화해야 하며, 각 단계별로 집중해야 할 역할에도 차이가 있다. 영아기는 0~2세에 해당하며 이 시기에는 아이 스스로 자신의 생존을 위한 활동, 신변처리 등이 서툴거나 불가능하므로 생애 어떤 발달단계보다도 전적으로 책임감 있는 돌봄이 요구된다(김순구, 2002). 부모의 집중적인 양육과 보호가 필요한 영아기에는 만약 돌봄이 필요한 활동이 누락되거나 지연될 경우 생존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애착 형성이 중요한 발달과업이 되며, 부모가 자녀의 필요에 적극적이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때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할 수 있는 만큼 양육자의 책임 있는 역할이 요구되는 시기이다(김상희 외, 2018). 또한, 취약 전 영유아기에는 교육기관이라는 공동생활을 처음 시작하면서 잔병치레를 자주 하게 되어, 자녀를 병원에 데려가거나 시간 맞춰 투약하고 아이의 상태를 파악하는 등의 건강관리도 필요한

시기이다(신명희 외, 2018). 영유아기의 중요성은 발달 원리 중 '누적성'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듯 인생에 있어서 발달의 근간이 되는 시기로, 이 시기에 발달과제를 정상적으로 성취하지 못하면 이후 발달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Hooper & Umansky, 2004) 영유아 시기의 돌봄과 교육은 중요하다(오정운, 2016). 영유아기는 스스로 신변처리를 할 수 없고 자기를 보호할 수 없다는 발달적 특성 때문에 이 시기의 자녀를 돌보는 일은 노동집약적인 특성을 가진다. 영유아기 자녀에게 미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자녀돌봄에 부부가 함께 해야 할 것이다(권인수, 2013; Margolin, Gordis, & John, 2001; Van Egeren & Hawkins, 2004). 또한 현대사회는 산업화로 인한 도시화와 핵가족화로 자녀양육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족 내 지지체계의 축소를 가져와 일면 독박육아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부부가 양육에 함께 참여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고(강학중·유계숙, 2005; 이영환, 2008), 시대적 변화에 따라 자녀 양육을 부부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Feinberg, 2003).

#### 2) 자녀돌봄활동의 유형과 특성

자녀돌봄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행동으로 구성된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자녀돌봄활동은 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자녀의 생존과 건강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활동들이 있고, 생존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더라도 발달을 촉진하거나 자녀 학습에 도움이 되는 활동이 있으며, 이 두 가지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돌봄활동이 있다(Altintas, 2015; Guryan & Kearney, 2008; Gimenez-Nadal & Molina, 2013; Kalil & Corey, 2012; Sayer, Bianchi, & Robinson, 2004; Zick & Österbacka, 2001). 이렇게 분류될 수 있는 자녀돌봄활동은 세부활동의 고유한 특성에 따라 양육자의 책임성의 정도가 달라진다(Altintas, 2015; Gimenez-Nadal & Molina, 2013; Guryan & Kearney, 2008; Kalil & Corey, 2012; Sayer et al., 2004). 기본돌봄(basic care)은 먹이기, 씻기기, 재우기, 간호하기 등 생존을 위한 기본적 욕구나 안전과 관련된 활동이 해당되고(Craig, 2006; Gimenez-Nadal & Molina, 2013; Guryan & Kearney, 2008; Kalil & Corey, 2012), 발달돌봄(development care)에는 가르치기, 놀아주기, 이야기하기, 숙제 봐주기 등의 활동이 포함된다(Bonke & Esping Andersen, 2009; Criag, 2006; Gimenez-Nadal & Molina, 2013; Guryan & Kearney, 2008; Kalil & Corey, 2012; Sayer et al., 2004; Zick & Österbacka, 2001).

이러한 맥락에서 부모의 자녀돌봄활동 유형은 크게 필수돌봄과 발달돌봄으로 구분할 수 있고,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필수돌봄은 자녀의 생존과 건강유지에 필요한 활동으로 주로 일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먹여주기, 씻겨주기, 기저귀 갈기, 간호하기 등으로 구성되고, 발달돌봄은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발달에 도움이 되는 활동으로 주로 간

혈적이고 일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놀아주기, 학습 도와주기, 함께 외출하기 등의 활동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돌봄활동을 돌봄을 받는 자녀의 측면과 돌봄을 제공하는 부모의 측면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필수돌봄과 발달돌봄의 활동적 특성의 차이가 잘 드러난다. 먼저 돌봄을 받는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 필수돌봄은 생존과 직결되는 것으로 정기적으로 충분히 제공되지 않을 경우 생존에 위협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이다. 특히 미취학자녀의 경우 스스로 자신의 식사를 준비할 수 없고, 신변처리가 어려우며 아플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병원을 가야하는 등 양육자의 즉각적이고 충분한 돌봄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영유아돌봄의 경우 정해진 시간에 수유를 하거나 음식과 하루 2회 이상의 간식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발달단계상 대소변훈련이 되지 않았을 수 있어 신변처리를 스스로 충분히 하기가 힘들고 아플 때 간호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세심한 돌봄이 필수적이다. 한편, 발달돌봄은 부모와 함께 신체적 놀이를 하거나 함께 외출하기 등을 통해 여가를 함께 보내는 동시에 신체적, 정서적 발달을 성취하게 되며, 부모의 학습지도를 통해 인지발달이 향상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다음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부모의 측면에서 보면, 필수돌봄에는 상당한 강도의 신체활동과 반복훈련을 통한 숙련이 요구되고, 영유아를 위한 식사는 나이가 많은 아동이나 성인의 식사와는 달라야 하며, 월령에 적합한 이유식을 만들거나 먹이지 말아야 할 음식 등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기저귀를 갈고 목욕시키는 활동은 반복 연습을 통해 숙련되지 않으면 자녀가 불편함을 느낄 수 있고,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면 아버지의 참여 동기가 약화될 수 있다. 이러한 연유로 노동집약적이고 숙련을 요하는 활동으로 분류되는 필수돌봄은 어머니에 의해 주로 수행되며, 이는 궁극적으로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차기주·김민정·정미라, 2016). 부모의 측면에서 발달돌봄은 별도의 훈련을 통한 숙련이 필요하지 않은 활동으로 볼 수 있다. 신체적으로 놀아주거나 자녀와 함께 외출을 하는 것, 자녀에게 책을 읽어주는 등의 활동으로 여가성 활동으로서의 특성이 강하다. 이와 같이 필수돌봄과 발달돌봄의 활동이 지닌 내재적 특성의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면, 비록 각 활동에 동일한 시간을 사용하였다 해도 부모가 경험하는 돌봄노동 피로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자녀돌봄 참여 행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시간량의 총계 뿐 아니라 돌봄활동의 세부적 유형을 필수돌봄과 발달돌봄으로 유형을 분류한 후, 각 유형별 자녀돌봄 활동에 사용한 시간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자녀돌봄활동의 세 가지 범주를 생존 및 건강유지를 위한 활동들을 '필수돌봄', 발달과 학습을 촉진하는 활동을 '발달돌봄', 그 외 분류되지 않는 활동은 '기타돌봄'으로 분류하여 각 활동에 아버지가 사용한 시간을 분석함으로써 아버지의 돌봄유형을 분석하고자 한다.

## 2. 아버지 자녀돌봄의 특성과 영향

### 1) 아버지 자녀돌봄의 특성

자녀를 돌보는 활동의 영역에 있어서 아버지와 어머니 간 차이가 있음은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Lamb(1981)은 15~24개월 된 영아를 둔 부모의 돌봄활동을 연구한 결과, 어머니는 자녀를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안아준 반면, 아버지는 자녀와 놀기 위해서 안아준 것으로 나타나 아버지의 자녀돌봄활동의 목적이 어머니와 차이가 있음을 실험을 통해 증명하였고, 아버지는 자녀와 함께 놀아주기, TV 시청하기, 과제 도와주기, 소풍 및 야유회 가기 등 여가성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경향이 있고, 어머니의 경우 목욕시키기, 기저귀 갈기, 우유 먹이기 등의 활동을 하는 데에 주로 시간을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Lamb et al.(1987)의 다른 실험에 의하면 어머니가 아닌 아버지가 주요돌봄제공자(primary care giver)일 경우, 아버지는 자녀 육구에 민감하고 빠르게 반응하며 자녀를 위한 안전지대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 즉, 자녀의 육구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반응하는 것이 여성 고유의 생물학적 현상으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 자녀돌봄경험에 의한 결과라는 것이다. '어머니는 양육, 아버지는 경제 부양'이라는 성별 역할분업은 유전자에 의한 합리적 분담이 아니라, 단지 사회통념에 의한 역할론에 의해 설명된다고 보았다.

한국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최경순(1992)은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여가활동, 가사활동, 생활지도, 학습지도의 네 가지 하위요인으로 분류하여 아버지가 자녀의 생존을 위해 일상을 책임지는 활동보다는 도와주는 역할을 주로 수행함을 보고하였고, 김희화(2005)의 연구에서는 아버지가 청소년 자녀와 함께 주중에는 훈육, 주말에는 여가생활, 학업 지원 등을 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사용을 중심으로 어머니와 아버지의 돌봄행태의 차이를 규명한 선행연구에서도 어머니는 자녀를 씻기고 먹이고 재우는 등의 활동에 시간을 주로 보내는 반면, 아버지는 자녀와 함께 TV를 보거나 놀아주는 등의 활동에 주로 시간을 사용하는 경향을 보였고(안수미·이기영·이승미, 2013; 이영환, 2012; 장혜경 외, 2006), 어머니의 자녀돌봄시간은 주중에 고르게 분포하는 반면, 아버지의 자녀돌봄시간은 평일 늦은 저녁시간이나 주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영두·이대균, 2011; 이영환, 2012; 김은화, 2011). 또한 손문금(2005)의 연구에서 아버지는 미취학자녀에게 책 읽어주기와 놀아주기 등 비필수돌봄에 시간을 많이 사용하였다.

이처럼 어린 자녀의 일상을 책임지고 생존과 건강유지를 위해 필요한 필수돌봄은 주로 어머니가 담당하고 아버지는 발달돌봄에 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현상은 맞벌이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가구에서 동일한 양상으로 나타났다(장미나·한경혜, 2011; 김소영·진미정, 2016).

## 2) 아버지의 자녀돌봄참여 효과

아버지가 자녀돌봄에 참여하는 것은 가족구성원 뿐 아니라 아버지 본인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아버지가 자녀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자녀의 인지, 사회성, 정서, 도덕성 발달, 성 개념 발달 및 자존감 향상을 통한 올바른 성격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으며(김혜력, 2013; 황순영·정영숙·우수영, 2005; Benzie, Harris & Magill-Evans, 2004), 특히 남아의 경우 아버지는 성역할 모델로 성 개념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허은, 2014). 아버지의 양육참여 정도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도 영향을 미친다. 유아를 둔 가정의 아버지가 양육에 참여하는 것은 어머니의 긍정적인 심리특성을 강화하고 양육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었고(김상림·박창현, 2016)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심리적 경험과 부적상관을 보였을 뿐 아니라(강희경, 2004; 최세실, 2016; 장영은, 2016) 유아의 심신 및 사회성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차기주 외, 2016). 특히 어머니가 양육스트레스를 심할수록 체벌이나 학대, 소리 지르기 등과 같은 부정적인 양육 방식을 취하게 되고(오수진, 2017) 리를 보고자란 자녀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어머니가 보인 부정적 행동을 모방하여 타인과의 관계에서 사용하게 되므로(박연주, 2001; 정송희·전효정, 2016) 또래관계의 악화나 반항(한준아·조윤주·김지현, 2014), 공격성과 같은 외현화 문제행동과 비행행동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연은모·최효식, 2020; Jackson, Brooks-Gunn & Glassman, 2000).

자녀돌봄과 양육에 참여하는 것은 아버지 본인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버지는 심리사회적으로 더 성숙하고 우울 수준이 낮아지는 등 정신건강에 도움을 받았고(최지은·김현경, 2019; Allen & Daly, 2007; Kim et al., 2014), 자녀양육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아버지는 사고나 조기 사망률이 낮아지는 등 신체건강에도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으며, 음주, 흡연 등 스스로 건강을 위협하는 행동을 더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으며, 부모로서 효능감도 증진되었다(최지은·김현경, 2019).

아버지가 양육에 적극적일수록 자녀의 문제행동은 줄어들고(연은모·최효식, 2020) 정서적, 인지적, 도덕적, 사회적 참여가 적극적이며(이현정, 2004), 성취동기가 높아지는가 하면(도금혜, 2008) 리더십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성혜, 2013). 이는 어머니의 심리적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연은모·최효식, 2020). 적극적으로 양육에 참여한 아버지의 자녀일수록 정서적 안정감을 바탕으로 자긍심, 공감 능력, 일관성의 특징을 보이고 자기 삶의 만족도, 관계성, 사회성, 진취성, 책임의식 등이 높아 사회적으로 성공할 확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정 및 자녀와 물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분리되어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는 부재형 아버지의 자녀는 사랑

받지 못함에 대하여 자신의 탓을 하며 오랫동안 자책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랑을 얻으려고 애쓰기도 한다. 성장한 이후 직장에서 상사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거나 분노장애 등 정서조절에 어려움을 경험하였다(강봉국·강헌구, 2013).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대체로 아버지의 자녀돌봄은 사용시간의 총량에 대한 분석, 아버지의 돌봄 및 양육참여가 가족에 미치는 영향 분석 등에 집중되어 왔으며, 어머니에 비해 훨씬 미흡한 아버지의 자녀돌봄 참여 증진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있다. 생활시간조사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이루어진 연구에서 최근 들어 아버지의 자녀돌봄시간이 지속하여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절대적인 시간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자녀돌봄 활동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분석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 아버지의 자녀돌봄시간을 필수돌봄과 발달돌봄으로 돌봄유형으로 구분하고 장기간에 걸쳐 각 유형에 사용한 시간량의 추이와 더불어 관련변수의 변화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 3. 아버지의 돌봄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아버지의 돌봄시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다양한 조사와 연구에 의해 밝혀지고 있다. 아버지가 자녀를 돌보는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버지 본인의 조건과 가정 내 여건에 따라 달라진다. Sayer(2005)와 김진욱과 권진(2017)은 부부의 유급 및 무급노동 시간을 가장 합리적인 방식으로 배분하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일 경우 아버지의 돌봄 노동시간이 증가하게 되고, 특히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경제활동참여는 아버지의 무급노동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라고 하였고, Gershuny(2000)는 전통적인 성역할이 점진적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연령 혹은 세대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분석하였다. 또한 Esping Anderson(2009)은 교육수준, 소득수준, 직종 등 사회계층에 따라 아버지의 무급노동 정도가 다르다고 보았다. 국내 연구결과에 따르면 자녀의 연령과 어머니가 경제활동 유무 즉, 맞벌이 여부라는 가정 내 여건과 아버지의 근무시간, 교육수준, 성역할 인식 등 아버지 개인의 조건에 따라 아버지의 자녀돌봄시간에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가정 내 여건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어머니가 경제활동을 하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그리고 부부간 소득의 차이가 적을수록 아버지가 자녀돌봄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였다. 아버지 조건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아버지의 근무시간이 짧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Ahn, Lee, & Lee, 2013; 배호중, 2015), 성역할 인식이 평등할수록 아버지의 자녀돌봄시간이 증가하였다(송유진, 2011; 주은선·김사현·김민성, 2014).

이와 같은 선행연구에 의하면 아버지의 자녀돌봄시간을 결정하는 요인은 맞벌이 여부, 자녀의 연령, 아버지의 근무시간, 교육수준, 연령, 성역할인식 등이라 할 것이다. 여성의 경제활동

동참여가 증가하고 있고 자녀의 수는 감소하고 있으며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시기에 따라 아버지의 자녀돌봄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변화가 있을 것이 예상된다. 또한 맞벌이 여부에 따라 부부의 가용시간과 가정 내 역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직접적인 돌봄이 많이 요구되는 미취학자녀가 있는 가정의 맞벌이 여부에 따른 일하는 아버지의 자녀돌봄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은 가정 맞춤형 지원정책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작업이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가정의 여건을 고려한 지원정책 및 프로그램이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맞벌이 아버지와 외벌이 아버지의 조사시기별 미취학자녀 돌봄유형별 돌봄시간과 참여율의 변화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맞벌이 아버지와 외벌이 아버지의 조사시기별 미취학자녀 돌봄유형별 돌봄시간을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 2. 자료

본 연구는 통계청 생활시간조사를 이용하여 미취학자녀를 둔 아버지의 자녀돌봄시간을 분석하였다. 지난 1999년 처음 시행된 생활시간조사는 시간일지와 질문지의 두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 5년 단위로 이루어져 최근 2019년 5차시에 이르는 자료가 축적되었다. 시간일지의 경우, 한 사람의 응답자가 서로 다른 두 요일에 일지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수집되었다. 본 연구는 맞벌이 여부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맞벌이 여부를 구분할 수 없는 1999년 자료를 제외하고, 2004, 2009, 2014, 2019년에 이르는 4차시, 15년간의 자료를 이용하여 시간일지방식으로 수집된 아버지의 자녀돌봄시간과 질문지 영역에서 수집된 인구사회학적 변수 등을 분석하였다.

#### 3. 연구대상 및 분석자료

본 연구는 미취학자녀가 존재하며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맞벌이 가정과 외벌이 가정의 아버지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부부 모두 시장노동을 하지 않는 가구는 제외하였다. 시장노동에 참여한 근무일에 작성한 시간일지 자료만을 분석하였다. 2004년에는 2,253개(맞벌이 861개, 외벌이 1,392개), 2009년에는 1,242개(맞벌이 485개, 외벌이 757개), 2014년에는

959개(맞벌이 486개, 외벌이 473개), 2019년에는 952개(맞벌이 436개, 외벌이 516개)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 4.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은 다음 <표 1>과 같다.

#### 5. 분석방법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 표준편차, 빈도, 백분율(%) 등 기술통계를 구하고, 각 집단별 시간사용의 차이를 산출하였다. 또한, 다른 변수의 효과를 통제한 후 종속변수인 자녀돌봄시간의 총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통계분석에는 SPSS Win 23이 사용되었다.

### IV. 연구결과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생활시간조사의 시간일지를 단위로 작성하였으며, <표 2>와 같다. 조사시기별 평균 연령을 비교하면, 맞벌이 아버지는 2004년에 36.3세에서 2019년 38.3세로 2.0세 증가하였고, 외벌이 아버지의 경우 같은 시기 35.1세에서 37.5세로 2.4세 증가하였다.

교육수준을 보면 고졸이하인 경우가, 맞벌이 아버지 집단에서는 2004년 44.0%에서 2019년 18.8%로 감소하였고, 외벌이 아버지 집단에서는 같은 기간 47.3%에서 16.1%로 감소하였다. 대졸 이상의 높은 교육수준을 가진 아버지의 비중을 보면, 맞벌이의 경우 2004년 43.3%에서 2019년 54.5%로, 외벌이의 경우 같은 기간 37.8%에서 57.4%로 증가하였다. 미취학자녀를 둔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맞벌이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가계소득 수준을 살펴보면, 가장 낮은 소득인 '하' 집단의 비율이 맞벌이의 경우 2004년 28.5%에서 2019년 26.8%로 약간 낮아졌고, 외벌이의 경우 같은 기간 25.2%에서 53.9%로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가장 높은 소득인 소득 '상'의 비율을 보면, 맞벌이의 경우 28.3%에서 30.5%로 약간 높아졌고, 외벌이의 경우 28.4%에서 11.2%로 낮아졌다. 즉, 맞벌이의 경우 소득이 낮은 '하' 집단은 감소하고 소득이 높은 '상' 집단을 증가하였으나, 외벌이의 경우 소득 '하' 집단은 2배 정도 증가하고, 소득 '상' 집단은 2배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변수명	조작적 정의
자녀돌봄시간	‘자녀돌보기’에 사용한 시간(단위: 분/일)
필수돌봄	자녀의 생존과 건강유지를 위해 필요한 활동(신체돌보기, 씻기기, 먹이기, 재우기, 간호하기 등)(단위: 분/일)
발달돌봄	생존과 직결되지는 않으나, 자녀의 발달 촉진이 도움이 되는 활동(훈육 및 공부가르치기, 책 읽어주기, 놀아주기, 스포츠활동하기 등)(단위: 분/일)
기타돌봄	필수돌봄과 발달돌봄에 속하지 않는 돌봄관련 활동 (단위: 분/일)
시장노동시간	생업을 위한 일을 하는데 사용한 시간(단위: 분/일)
출퇴근시간	‘출근’과 ‘퇴근’에 사용한 시간의 합계(단위: 분/일)
참여율	전체 응답 중 해당 자녀돌봄 활동에 시간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응답을 배제한 비율로서 1분 이상 활동을 수행한 응답자의 비율(단위: %)
조사시기	2004(t <sub>1</sub> ), 2009(t <sub>2</sub> ), 2014(t <sub>3</sub> ), 2019(t <sub>4</sub> )의 5년 간격으로 이루어진 조사시기
인구사회학적 변수	
연령	만 나이(단위: 세)
가계소득	소득집단은 조사시기별 척도에 차이가 있어 소득구간별 빈도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여 월평균 가계소득을 ‘하’, ‘중’, ‘상’ 집단으로 구분
성평등의식	‘남자는 일, 여자는 가정’에 대한 응답을 역 코딩하여 값이 클수록 성평등의식이 높음을 의미 (1=적극 찬성, 2=약간 찬성, 3=약간 반대, 4=적극 반대)
교육수준	‘고졸이하(무학, 초졸, 중졸, 고졸의 응답 합계)’, ‘전문대졸(4년제 미만 대졸)’, ‘대졸이상(4년제 이상 대졸, 대학원졸이상의 응답 합계)’으로 구분한 교육수준

〈표 2〉 조사시기별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004(t <sub>1</sub> )		2009(t <sub>2</sub> )		2014(t <sub>3</sub> )		2019(t <sub>4</sub> )		
	맞벌이	외벌이	맞벌이	외벌이	맞벌이	외벌이	맞벌이	외벌이	
	M(SD)/빈도(%)	M(SD)/빈도(%)	M(SD)/빈도(%)	M(SD)/빈도(%)	M(SD)/빈도(%)	M(SD)/빈도(%)	M(SD)/빈도(%)	M(SD)/빈도(%)	
연령	36.3(39.5)	35.1(4.8)	37.2(50.8)	35.7(4.9)	38.7(53.4)	38.4(8.0)	38.3(5.5)	37.5(5.1)	
교육수준	고졸이하	379(44.0)	659(47.3)	172(35.5)	277(36.6)	126(25.9)	129(27.3)	82(18.8)	83(16.1)
	전문대졸	109(12.7)	207(14.9)	131(27.0)	201(26.6)	124(25.5)	134(28.3)	116(26.6)	137(26.6)
	대졸이상	373(43.3)	526(37.8)	182(37.5)	279(36.9)	124(25.5)	134(28.3)	238(54.6)	296(57.4)
소득	하	245(28.5)	350(25.2)	193(39.8)	257(36.9)	149(30.7)	135(28.5)	117(26.8)	278(53.9)
	중	372(43.2)	646(46.4)	224(46.2)	363(48.0)	208(42.8)	221(46.7)	117(26.8)	278(34.9)
	상	244(28.3)	396(28.4)	68(14.0)	137(18.1)	129(26.5)	117(24.7)	133(30.5)	58(11.2)
성평등의식	2.6(,6)	2.3(,6)	2.7(,7)	2.4(,6)	2.6(,8)	2.5(,8)	3.1(,8)	2.9(,8)	
시장노동시간	456.1(168.3)	452.4(160.1)	429.5(157.4)	449.7(158.7)	438.6(168.8)	440.7(178.2)	450.0(136.1)	457.5(157.1)	
출퇴근시간	56.2(40.4)	64.7(43.5)	60.7(39.9)	69.6(42.7)	66.2(,3)	68.7(,3)	68.1(43.5)	77.4(50.1)	
소계	861	1,392	485	757	486	473	436	516	
n	2,253		1,242		959		952		

성평등의식 변수는 값이 클수록 성평등의식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맞벌이와 외벌이 아버지 각각 성평등의식이 2004년 2.6점, 2.3점에서 2019년에는 3.1점, 2.9점으로 상승하여 두 집단 모두 성평등의식이 다소 높아졌으며, 모든 조사시기에서 외벌이 아버지에 비해 맞벌이 아버지의 성평등의식이 높았다.

시장노동시간은 맞벌이의 경우 2004년에 456분에서 2019년 450분으로 6분 감소한 반면, 외벌이의 경우 같은 기간 452분에서 458분으로 6분 증가하였다. 출퇴근시간은 2004년에 비해 2019년에 맞벌이 아버지와 외벌이 아버지 각각 12분, 13분 정도 늘어났다.

## 2. 맞벌이 아버지와 외벌이 아버지의 미취학자녀 돌봄시간 및 참여율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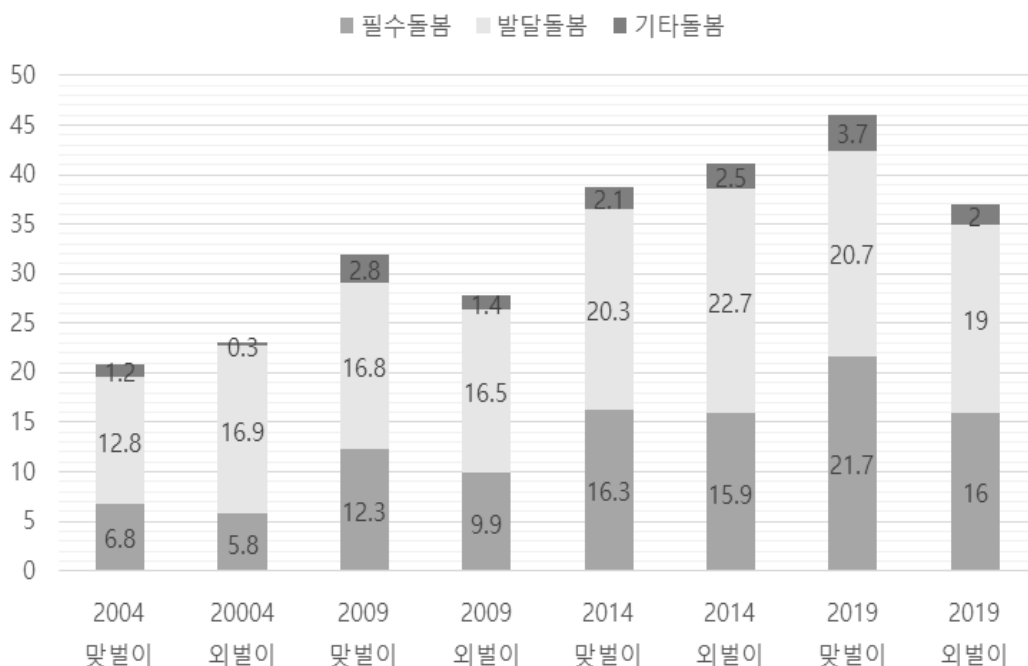
### 1) 맞벌이 아버지와 외벌이 아버지의 미취학자녀 돌봄시간의 변화

평일 맞벌이 아버지와 외벌이 아버지가 미취학자녀를 돌보는 데에 사용한 시간의 변화는 다음 <표 3>과 <그림 1>과 같다. 맞벌이 여부에 관계 없이 두 집단 모두 각각 자녀돌봄 시간에서 증가 추이를 보였다. 아버지의 전체돌봄시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맞벌이 아버지의 경우 2004년 23.3분에서 2019년 47.0분으로 지난 15년 동안 23.7분 증가하였고, 외벌이 아버지의 경우 2004년 23.6분에서 2019년 37.3분으로 지난 15년 동안 13.7분 증가하였다. 필수돌봄에서 맞벌이 아버지는 2004년 6.8분에서 2019년 21.7분으로 지난 15년 동안 14.9분 증가하였고, 외벌이 아버지는 2004년 5.8분에서 2019년 16.0분으로 10.2분 증가하였다. 발달돌봄에서 맞벌이 아버지는 2004년 12.8분에서 2019년 20.7분으로 지난 15년 동안 7.9분 증가하였고, 외벌이 아버지는 2004년 16.9분에서 2019년 19.0분으로 2.5분 증가하였다. 기타돌봄에서 맞벌이 아버지는 2004년 1.2분에서 2019년 2.0분으로 0.8분 증가하였고, 외벌이 아버지는 2004년 2.8분에서 2019년 2.0분으로 0.8분 감소하였다.

<표 3> 맞벌이 아버지와 외벌이 아버지의 미취학자녀 돌봄유형별 사용시간의 변화

(단위: 일/분)

	맞벌이 아버지					외벌이 아버지				
	2004 (t <sub>1</sub> )	2009 (t <sub>2</sub> )	2014 (t <sub>3</sub> )	2019 (t <sub>4</sub> )	t <sub>4</sub> -t <sub>1</sub>	2004 (t <sub>1</sub> )	2009 (t <sub>2</sub> )	2014 (t <sub>3</sub> )	2019 (t <sub>4</sub> )	t <sub>4</sub> -t <sub>1</sub>
전체돌봄시간	23.3	36.6	39.4	47.0	23.7	23.6	29.4	41.6	37.3	13.7
필수돌봄	6.8	12.3	16.3	21.7	14.9	5.8	9.9	15.9	16.0	10.2
발달돌봄	12.8	16.8	20.3	20.7	7.9	16.9	16.5	22.7	19.0	2.5
기타돌봄	1.2	2.8	2.1	3.7	2.5	0.3	1.4	2.5	2.0	1.7
n	861	485	486	436	-	1,392	757	473	516	-



[그림 1] 맞벌이 아버지와 외벌이 아버지의 돌봄유형별 사용시간의 변화



12.8분에서 2019년 20.7분으로 7.9분 증가하였고, 외벌이 아버지는 2004년 16.9분에서 2019년 19.0분으로 지난 15년 동안 약 2분 증가하였다. 미취학자녀를 둔 아버지의 자녀돌봄시간은 증가하였으나 외벌이 아버지에 비해 맞벌이 아버지의 모든 자녀돌봄영역에 사용한 시간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돌봄영역구성에 있어서 맞벌이 아버지의 경우 2014년까지 발달돌봄에 사용하는 시간이 많아 4~6분의 격차가 있었으나, 2019년에는 필수돌봄과 발달돌봄의 격차가 줄어들어 약 1분 정도 필수돌봄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였다. 외벌이 아버지의 경우도 필수돌봄과 발달돌봄에 사용하는 시간의 격차가 점차 줄어들고 있어 2004년에는 필수돌봄과 발달돌봄이 11.1분이었으나 2019년에는 그 격차가 3분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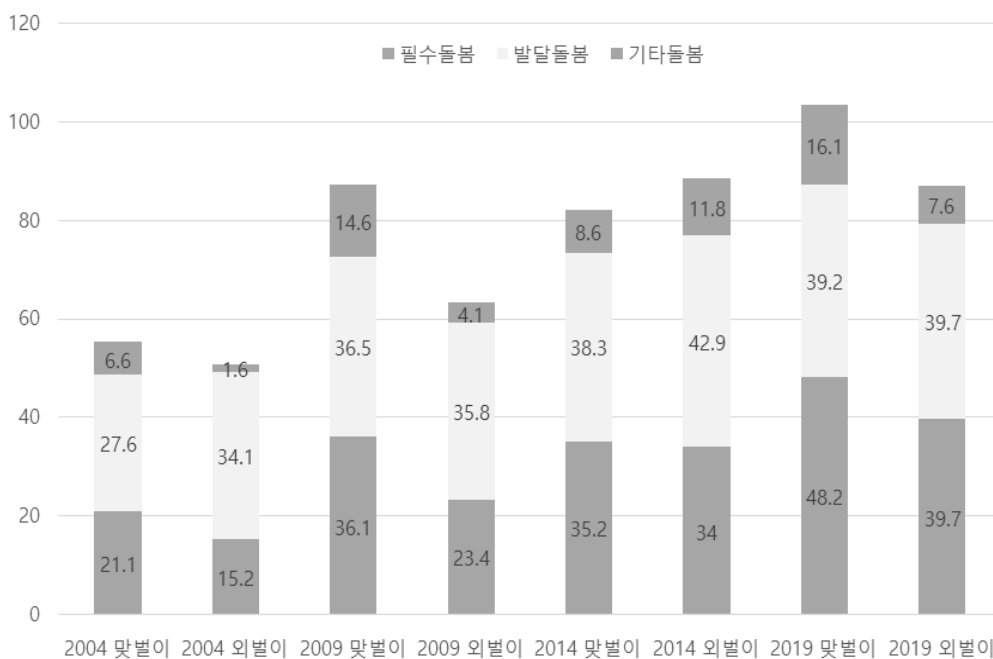
## 2) 맞벌이 아버지와 외벌이 아버지의 미취학자녀 돌봄참여율의 변화

미취학자녀 돌봄 참여율에 있어서 맞벌이 아버지와 외벌이 아버지를 비교한 결과는 <표 4>와 <그림 2>에서 제시하였다. 맞벌이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돌봄 참여율에서 증가추이가 타났다. 2004년에는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맞벌이 46.1%, 외벌이 42.6%만이 자녀돌봄에 참여하는 수준이었으나 2019년에는 맞벌이 69.5%, 외벌이 63.2%로 증가하여, 지난 15년 동안 아버지의 자녀돌봄 참여율이 20% 이상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돌봄영역별로 참여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맞벌이 아버지의 필수돌봄 참여율은 2004년 21.1%에서 2019년 48.2%로 15년 동안 27.1% 증가하였다. 발달돌봄에 참여율은 2004년 27.6%에서 2019년 39.2%로 11.6% 증가하였다. 맞벌이 아버지의 경우 2004년부터 2014년까지 발달돌봄에 더 많이 참여하였으나 2019년에는 필수돌봄에 더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벌이 아버지의 경우 필수돌봄 참여율은 2004년 15.2%에서 2019년

〈표 4〉 맞벌이 아버지와 외벌이 아버지의 미취학자녀돌봄 참여율의 변화

(단위: %)

	맞벌이 아버지					외벌이 아버지				
	2004 (t <sub>1</sub> )	2009 (t <sub>2</sub> )	2014 (t <sub>3</sub> )	2019 (t <sub>4</sub> )	t <sub>4</sub> -t <sub>1</sub> (%p)	2004 (t <sub>1</sub> )	2009 (t <sub>2</sub> )	2014 (t <sub>3</sub> )	2019 (t <sub>4</sub> )	t <sub>4</sub> -t <sub>1</sub>
전체돌봄	46.1	60.2	58.4	69.5	23.4	42.6	51.5	61.9	63.2	20.6
필수돌봄	21.1	36.1	35.2	48.2	27.1	15.2	23.4	34.0	39.7	24.5
발달돌봄	27.6	36.5	38.3	39.2	11.6	34.1	35.8	42.9	39.7	5.6
기타돌봄	6.6	14.6	8.6	16.1	9.5	1.6	4.1	11.8	7.6	6.0
n	861	485	486	436	-	1,392	757	473	516	-



〈그림 2〉 맞벌이 아버지와 외벌이 아버지의 돌봄시간 참여율의 변화추이

39.7%로 24.5% 증가하였고, 발달돌봄에 참여율은 2004년 34.1%에서 2019년 39.7%로 5.6% 증가하는 것에 그쳤다. 외벌이 아버지의 경우는 2004년부터 2014년까지 필수돌봄보다 발달돌봄 참여율이 더 높았으나, 2019년에 참여율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아버지의 미취학자녀 돌봄 참여율을 분석한 결과 맞벌이와 외벌이 아버지 모두 전체 참여율이 증가하였고, 맞벌이 아버지의 경우 필수돌봄에의 참여율이 더 높았다.

### 3. 미취학자녀를 둔 아버지의 자녀돌봄 유형별 시간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미취학자녀를 둔 맞벌이 아버지와 외벌이 아버지의 자녀돌봄시간을 결정하는 요인을 파악 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각각 <표 5> <표 6>과 같다. 종속변수는 '전체 자녀돌봄'이외에도 '필수돌봄'과 '발달돌봄'을 분리하여 분석하고, '기타돌봄'은 회귀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를 위해 사용된 회귀분석모형의 F검정 결과 모든 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R^2$ 는 .1~.2 수준으로 약간 낮았다.

#### 1) 맞벌이 아버지의 자녀돌봄 유형별 시간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맞벌이 아버지의 경우 자녀돌봄 유형별 시간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조사시기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른 변수를 통제할 때, 2004년 조사의 경우 전체돌봄시간, 필수돌봄시간, 발달돌봄시간 각각에 공통적으로 유의한 변수는 성평등의식과 시장노동시간으로 나타나 성평등의식이 높을수록, 시장노동시간이 짧을수록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2009년의 경우에는 전체돌봄시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성평등의식, 시장노동시간, 출퇴근시간이었고, 필수돌봄시간에는 연령, 교육수준, 성평등의식, 노동시간이었으며, 발달돌봄시간에는 연령, 성평등의식, 시장노동시간이었다. 즉, 아버지의 연령이 낮을수록 필수돌봄과 발달돌봄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였고, 전문대졸 학력의 아버지보다 대졸 아버지가 발달돌봄에 5.7분을 더 사용하였으며, 성평등의식이 높고 시장노동시간이 짧을수록 모든 돌봄영역에서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었다. 2014년의 경우 전체돌봄시간에 유의하게 영향을 준 변수는 교육수준, 성평등의식, 시장노동시간, 출퇴근시간이었고, 필수돌봄시간에는 학력, 성평등의식, 노동시간과 출퇴근시간이었으며, 발달돌봄시간에는 노동시간만이 유의하였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전문대졸인 경우보다 대졸이상인 경우 전체돌봄시간에 약 4분 정도 더 많이 사용하였고, 고졸이하의 경우 전문대졸보다 필수적돌봄에 약 9분 정도 더 적게 사용하였다. 성평등의식이 높을수록 필수돌봄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였고, 노동시간이 적을수록 자녀돌봄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였다. 2019년의 경우 전체돌봄시간에 유의하게 영향을 준 변수는 연령, 교육수준, 시장노동시간이었고, 필수돌봄시간에

는 연령, 교육수준, 노동시간이, 발달돌봄시간에는 시장노동시간이었다. 즉, 아버지의 연령이 낮고, 아버지의 학력이 전문대졸인 경우보다 대졸인 경우 전체돌봄시간과 필수돌봄시간이 더 길었고, 시장노동시간이 짧을수록 필수돌봄과 발달돌봄에 사용하는 시간이 더 길었다.

#### 2) 외벌이 아버지의 자녀돌봄 유형별 시간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외벌이 아버지의 경우 다른 변수를 통제할 때 자녀돌봄 유형별 시간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조사시기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4년 조사에서는 전체돌봄시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연령, 시장노동시간이 있었고, 필수돌봄에는 연령, 성평등의식, 시장노동시간이 있었으며, 발달돌봄시간에는 연령, 시장노동시간이었다. 연령과 시장노동시간은 모든 유형의 돌봄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연령이 낮을수록, 시장노동시간이 적을수록 자녀돌봄시간을 증가하였다. 한편, 성평등의식은 필수돌봄시간에만 영향을 미쳤는데, 성평등의식 점수가 1점 높아지면 필수돌봄에 1.6분 더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조사의 경우, 전체돌봄시간에는 시장노동시간과 출퇴근시간이 영향을 미쳤고, 필수돌봄에는 시장노동시간이, 발달돌봄에는 연령, 시장노동시간, 출퇴근시간이 영향을 미쳤다. 즉, 시장노동시간이 짧을수록 모든 자녀돌봄영역에서 시간을 더 사용하였고, 출퇴근시간이 짧을수록 전체돌봄시간과 발달돌봄시간에 시간을 더 사용하였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발달돌봄시간에 시간을 더 사용하였다. 2014년 조사의 경우, 외벌이 아버지의 자녀돌봄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아버지의 연령, 교육수준, 성평등의식, 시장노동시간, 출퇴근시간이었다. 전체돌봄시간에는 연령, 학력, 성평등의식, 노동시간, 출퇴근시간이, 필수돌봄시간에는 연령, 학력, 성평등의식, 시장노동시간, 출퇴근시간이, 발달돌봄시간에는 노동시간과 출퇴근시간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벌이 아버지는 시장노동시간과 출퇴근시간이 짧을수록 모든 돌봄영역에서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였고, 연령이 낮을수록, 성평등의식이 높을수록 전체돌봄과 필수돌봄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였고, 전문대졸보다 고졸일 때 전체돌봄과 필수돌봄에 사용하는 시간이 적고, 대졸이상의 경우 필수돌봄에 사용하는 시간이 더 길었다. 2019년 조사의 경우, 외벌이 아버지의 자녀돌봄시간 결정요인은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성평등의식, 시장노동시간으로 나타났다. 전체돌봄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연령, 교육수준, 시장노동시간이, 필수돌봄시간에는 연령, 소득수준, 성평등의식과 시장노동시간, 발달돌봄과 기타돌봄에는 시장노동시간이었다. 즉, 시장노동시간이 짧을수록 모든 돌봄유형에서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였고, 연령이 낮을수록 전체돌봄과 필수돌봄에, 소득수준이 '중' 보다 '상'인 경우 필수돌봄에 더 적은 시간을 사용하였으며, 성평등의식이 높을수록 필수돌봄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였다.

〈표 5〉 맞벌이 아버지의 미취학자녀 돌봄시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2004(t <sub>1</sub> )						2009(t <sub>2</sub> )						2014(t <sub>3</sub> )						2019(t <sub>4</sub> )						
	전체		돌봄		발달		전체		돌봄		발달		전체		돌봄		발달		전체		돌봄		발달		
	B	SE	B	SE	B	SE	B	SE	B	SE	B	SE	B	SE	B	SE	B	SE	B	SE	B	SE	B	SE	
연령	.1	.3	-2	.1	-1	.2	-5	.4	-4	.2	-6	.3	.5	.3	-3	.2	-1	.2	-1.0	.5	-1.1	.3	.1	.3	
교육수준(기준:전문대졸)																									
고졸 이하	-3.5	4.2	1.0	1.8	-3.2	3.0	2.7	5.5	-2.1	1.4	4.1	3.6	-12	.1	-8.6	3.6	-2.9	4.1	8.9	7.6	5.8	4.5	4.8	.1	
대졸 이상	-1.0	4.1	1.1	1.8	.2	3.0	9.4	5.4	5.7	2.4	1.9	3.6	4.1	5.6	.4	3.3	4.8	3.8	15.0	5.9	7.3	3.4	6.1	3.7	
소득수준(기준:중)																									
하	2.3	3.2	.5	1.4	2.3	2.3	-2.3	4.7	-4	2.0	-2.9	3.1	.3	5.7	-1.8	3.2	2.9	3.6	-2.6	6.1	-1.9	3.6	-5.7	3.9	
상	.1	3.2	.5	1.4	.3	2.4	-4.8	6.5	-1.3	2.8	-3.4	4.3	3.2	5.4	.2	3.4	1.7	3.8	-8	6.0	-2	3.5	-1.2	3.8	
성평등 의식	8.1	2.1	3.5	.9	3.6	1.5	6.8	3.1	2.9	1.4	.9	2.1	5.8	2.7	3.4	1.6	-.9	1.8	4.0	3.2	1.7	1.9	2.6	2.0	
시장노동 시간	-1	.0	-0	.0	-0	.0	-1	.0	-0	.0	-1	.0	-1	.0	-0	.0	-1	.0	-1	.0	-1	.0	-0	.0	
출퇴근 시간	-0	.0	.0	.0	-0	.0	-1	.1	-0	.0	-1	.0	-1	.1	-1	.3	-0	.0	-0	.0	.0	.0	-0	.0	
상수	32.2	12.9	12.4	5.7	23.0	9.4	96.8	19.7	34.9	8.6	64.5	13.1	106.7	17.5	45.1	10.4	55.1	11.7	111.5	22.8	76.5	13.3	28.2	14.4	
F값	12.9		7.1		6.8		14.8		8.4		7.2		13.0		6.4		6.7		3.9		6.4		3.5		
R <sup>2</sup>	.1		.1		.1		.2		.1		.1		.2		.1		.1		.0		.1		.1		
n			861						485						486								436		

\* p < .05, \*\* p < .01, \*\*\* p < .001

〈표 6〉 외벌이 아버지의 미취학자녀 돌봄시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2004(t <sub>1</sub> )						2009(t <sub>2</sub> )						2014(t <sub>3</sub> )						2019(t <sub>4</sub> )					
	진체 돌봄		필수 돌봄		발달 돌봄		진체 돌봄		필수 돌봄		발달 돌봄		진체 돌봄		필수 돌봄		발달 돌봄		진체 돌봄		필수 돌봄		발달 돌봄	
	B	SE	B	SE	B	SE	B	SE	B	SE	B	SE	B	SE	B	SE	B	SE	B	SE	B	SE	B	SE
연령	-1.5 <sup>***</sup>	.2 <sup>***</sup>	-5 <sup>***</sup>	.1 <sup>***</sup>	-1.0 <sup>***</sup>	.2 <sup>***</sup>	-.5 <sup>***</sup>	.3 <sup>***</sup>	.1 <sup>***</sup>	.2 <sup>***</sup>	-.7 <sup>***</sup>	.2 <sup>***</sup>	-.5 <sup>***</sup>	.3 <sup>***</sup>	-.3 <sup>***</sup>	.2 <sup>***</sup>	-.1 <sup>***</sup>	.2 <sup>***</sup>	-1.4 <sup>***</sup>	.4 <sup>***</sup>	-1.1 <sup>***</sup>	.2 <sup>***</sup>	-.4 <sup>***</sup>	.3 <sup>***</sup>
교육수준(기준:전문대졸)																								
고졸 이하	-3.1	3.0	-2.7	1.4	-.6	2.4	-8	3.8	-3.0	2.4	2.1	2.5	-12.2	6.1 <sup>*</sup>	-8.6	3.6 <sup>*</sup>	-2.9	4.1	2.1	5.8 <sup>***</sup>	6.8	3.4	-5.0	4.3
대졸 이상	.3	3.1	.2	1.6	-.3	2.5	1.7	3.8	-.0	2.4	2.4	2.2	4.1	5.6	.4	3.3 <sup>***</sup>	4.8	3.8	1.8	4.4	3.0	2.7	-1.1	3.2
소득수준(기준:중)																								
하	-3.1	2.5	-.2	1.2	-3.1	2.0	1.2	3.8	-.6	2.2	2.1	2.2	.3	5.4	-1.8	3.2	2.9	3.6	3.9	4.0	-5	2.4	3.9	3.0
상	-3.3	2.5	-.8	1.2	-3.1	2.0	-3.1	4.3	-4.1	2.7	.4	2.8	3.2	5.7	.2	3.4	1.7	3.8	-10.5	6.4	-10.6	3.8 <sup>***</sup>	1.4	4.6
성평등 의식	2.7	1.6	1.6	.8	1.0	.2	.5	2.3	2.2	1.5	-1.3	1.5	5.8	2.7 <sup>*</sup>	3.4	1.6 <sup>*</sup>	-.9	1.8	4.5	2.2 <sup>*</sup>	5.1	1.4 <sup>***</sup>	-.3	1.6
시장노동 시간	-.6	.0 <sup>***</sup>	-.0	.0 <sup>***</sup>	-.0	.0 <sup>***</sup>	-.1	2.3 <sup>***</sup>	-.0	.0 <sup>***</sup>	-.0	.0 <sup>***</sup>	-.1	.0 <sup>***</sup>	-.0	.0 <sup>***</sup>	-.1	.0 <sup>***</sup>	-.1	.0 <sup>***</sup>	-.1	.0 <sup>***</sup>	-.0	.0 <sup>***</sup>
출퇴근 시간	-.1	.0	-.2	.0	-.0	.0	-.1	.0 <sup>***</sup>	-.0	.0	-.1	.0 <sup>*</sup>	-.1	.1 <sup>*</sup>	-.1	.0 <sup>*</sup>	-.0	.0	-.1	.0	-.0	.0	-.0	.0
상수	102.8	9.3 <sup>***</sup>	28.9	4.6 <sup>***</sup>	75.2	7.5 <sup>***</sup>	87.8	13.9 <sup>***</sup>	19.6	8.9 <sup>***</sup>	67.8	9.0 <sup>***</sup>	106.7	17.5	45.1	10.3 <sup>***</sup>	55.1	11.8 <sup>***</sup>	131.8	17.5	68.4	10.6 <sup>***</sup>	52.8	12.8 <sup>***</sup>
F값	21.4 <sup>***</sup>	7.9 <sup>***</sup>	17.3 <sup>***</sup>	4.7 <sup>***</sup>	11.2 <sup>***</sup>	12.7 <sup>***</sup>	13.0 <sup>***</sup>	6.4 <sup>***</sup>	6.6 <sup>***</sup>	6.6 <sup>***</sup>	17.8 <sup>***</sup>	15.8 <sup>***</sup>	3.6 <sup>***</sup>											
R <sup>2</sup>	.1	.0	.1	.0	.1	.1	.2	.1	.1	.1	.2	.2												
n	1,392						757						486						516					

\* p < .05, \*\* p < .01, \*\*\* p < .001

## V. 요약 및 결론

지금까지 본 연구는 2004년부터 2019년까지 15년간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미취학자녀를 둔 맞벌이 아버지와 외벌이 아버지를 대상으로 ‘필수돌봄’과 ‘발달돌봄’으로 구분하여 자녀돌봄시간 사용량에서 나타난 변화를 살펴보았다. 흔히 아버지의 경우 어머니에 비해 자녀돌봄 참여 수준이 매우 낮고 숙련과 양육지식이 필요하고 노동집약적인 필수돌봄보다는 간헐적인 참여가 가능하고 여가의 성격을 띤 발달돌봄에 사용하는 시간의 비중이 높다. 이러한 양상은 아버지의 자녀돌봄 참여 증가가 부부간 자녀돌봄의 실질적인 공평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이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한계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자녀돌봄 유형별 차이를 분석하는 데 연구의 의의를 두었다. 또한, 본 연구는 조사 시기별 각각의 돌봄유형에 사용하는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의 미취학자녀 돌봄시간은 맞벌이 아버지와 외벌이 아버지 모두 최근으로 올수록 전체돌봄시간 사용량이 증가하였다. 맞벌이 아버지와 외벌이 아버지의 경우 전체돌봄시간은 2004년 각각 23분, 24분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최근 시기인 2019년의 경우, 맞벌이 아버지는 47분을 사용하여 지난 15년간 24분 증가하였고, 외벌이 아버지는 37분으로 13분 증가하는 데 그쳤다. 다음으로 전체돌봄시간을 필수돌봄과 발달돌봄으로 구분하여 변화를 살펴보면, 발달돌봄에 비해 필수돌봄에서 더 큰 시간사용량의 증가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외벌이 아버지에게 비해 맞벌이 아버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먼저 필수돌봄에서 맞벌이 아버지는 2004년 7분에서 2019년 22분으로 15분 증가하였고, 외벌이 아버지는 같은 시기 6분에서 16분으로 10분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발달돌봄시간의 변화량을 살펴보면, 맞벌이 아버지는 2004년 당시 발달돌봄시간이 13분으로 필수돌봄에 비해 약 2배에 이를 만큼 길었으나, 2019년에 이르면 발달돌봄시간과 유사한 수준인 21분을 사용하였다. 외벌이 아버지의 경우에도 발달돌봄시간은 2004년 17분으로 필수돌봄에 비해 약 3배 많은 시간을 사용하였으나, 2019년에는 필수돌봄에 비해 약간 더 많은 19분을 사용하여 15년간 2분 정도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아버지들의 자녀돌봄 참여율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있었다. 우선 전체돌봄에 참여율을 살펴보면 맞벌이 아버지의 경우 2004년에는 46.1%가 자녀돌봄에 참여하였으나 2019년에는 69.5%로 15년간 23.4%가 증가하였고, 외벌이의 경우는 42.6%에서 63.2%로 20.6% 증가하였다. 돌봄유형에 따른 참여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필수돌봄에 맞벌이 아버지의 참여율은 2004년 21.1%에서 2019년 48.2%로 27.1% 증가하였고, 외벌이 아버지의 경우 2004년 15.2%에서 39.7%로 24.5%로 증가하였다. 발달돌봄 참여율 변화에 있어서 맞벌이 아버지의 경우는

27.6%에서 2019년 39.2%로 11.6% 증가하였고, 외벌이 아버지의 경우는 2004년 34.1%에서 2019년 39.7%로 5.6% 증가하였다. 전체참여율의 경우 2004년에도 맞벌이 아버지의 참여율이 높았고 외벌이와의 차이는 약 4% 차이였으나, 2019년에는 맞벌이와 외벌이 아버지의 참여율의 차이가 약 6%로 맞벌이 아버지가 자녀돌봄에 더 많이 참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돌봄유형별 참여율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2004년에는 맞벌이와 외벌이 아버지 모두 필수돌봄보다는 발달돌봄에 더 많이 참여하였으나, 맞벌이 아버지의 경우 필수돌봄에 참여하는 비율이 급속하게 증가하여 2019년에는 발달돌봄보다 필수돌봄에의 참여율이 더 높아지게 되었고, 외벌이 아버지의 경우도 필수돌봄과 발달돌봄에 참여율이 동일할 만큼 증가하였다.

셋째, 아버지의 자녀돌봄시간의 결정요인은 아버지의 연령, 교육수준, 성평등의식, 시장노동시간, 출퇴근시간이었는데, 특히 직업과 관련된 시장노동시간은 모든 조사시기에서 맞벌이와 외벌이 아버지의 자녀돌봄시간에 영향을 미쳤고, 출퇴근시간은 노동시간만큼 강력하지는 않았지만 외벌이 아버지의 자녀돌봄시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조사시기별 변화를 살펴보면 맞벌이 아버지의 자녀돌봄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2004년에는 성평등의식과 시장노동시간, 2009년에 연령, 학력, 성평등의식, 시장노동시간과 출퇴근시간이, 2014년에는 학력, 시장노동시간과 출퇴근시간이, 2019년에는 연령, 학력, 그리고 시장노동시간으로 밝혀졌다. 외벌이 아버지의 자녀돌봄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2004년에는 연령, 성평등의식과 시장노동시간, 2009년에 연령, 성평등의식, 시장노동시간과 출퇴근시간이, 2014년에는 연령, 학력, 성평등의식, 시장노동시간과 출퇴근시간이, 2019년에는 연령, 학력, 소득, 성평등의식과 시장노동시간으로 밝혀졌다. 아버지의 자녀돌봄시간을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시장노동시간, 성평등의식, 학력, 연령 등이 있었고, 영향을 미치는 변화의 양상을 살펴보면, 시장노동시간은 모든 조사연도의 모든 돌봄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시장노동시간이 짧을수록 자녀돌봄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였다. 성평등의식은 2009년까지 모든 돌봄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으나, 최근으로 올수록 그 영향력이 점차 약화되어 특히 맞벌이 아버지의 경우 2019년에는 성평등의식의 영향력은 더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과 교육수준의 영향이 더 뚜렷한 것으로 보인다. 맞벌이 아버지의 경우 연령이 낮고 전문대졸에 비해 대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 자녀돌봄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였다. 이에 비해, 외벌이 아버지의 경우 여전히 성평등의식 변수의 영향이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어 맞벌이 아버지와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아버지의 자녀돌봄시간 사용이 최근으로 올수록 점차 증가한 것과 관련된 논의이다. 이는 여러 선행연구(김나영, 2017; 김진욱·권진, 2017)에서 확인된 바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무엇보다

필수돌봄과 발달돌봄에 사용하는 시간량의 변화 흐름에서 나타난 차이에 주목한 결과, 아버지의 전통적 돌봄 참여행태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과거 아버지의 자녀돌봄은 어머니의 역할을 보조하거나 도와주는 수준에서 소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안수미 외, 2013; 이영환, 2012; 장혜경 외, 2006). 이는 아버지들이 주로 자녀와 신체적으로 놀아주거나 책 읽어주기 등 아버지 자신의 여가활동으로서의 성격이 부가된 발달돌봄 활동에 주로 참여한 데에서 나타난다. 이때 필수돌봄은 어머니의 역할로 규정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으나 최근으로 올수록 아버지 자신의 자녀돌봄시간 사용에서만은 필수돌봄과 발달돌봄의 비중이 점점 더 비슷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었는데, 이는 새로운 변화의 측면을 시사한다 하겠다. 특히, 맞벌이 아버지의 경우 최근 조사 시기인 2019년에 이르면 발달돌봄보다 오히려 필수돌봄에서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였는데, 시장경제활동과 가정관리와 자녀돌봄 등 가사노동의 책임을 부부가 분담해야 하는 맞벌이가정에서 아버지의 자녀돌봄 역할이 단순히 도움을 주는 사람(helper)의 역할에 그치지 않고 자녀의 생존과 건강 유지를 위한 필수돌봄에 참여하는 주된 양육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비중이 높아졌다는 것은 단순한 시간량의 증가라는 변화를 넘어 아버지의 자녀돌봄의 실질적 책임이 강화되었음을 나타내는 긍정적 변화라 할 것이다. 이는 아버지가 자녀와 놀아주는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고(Lamb, 1981), 가정 내 무급노동 중 미취학자녀와 놀아주기에 주로 참여하며(손문금, 2005) 청소년 자녀와 여가시간을 함께 보낸다는 선행연구(이학옥, 1998)의 결과와도 차이가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김은수(2019)의 연구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족에 대한 공동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제기한 '부모공동양육'으로 변화하는 중요한 전환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것이다.

둘째, 자녀돌봄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의 변화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시장노동시간은 모든 조사연도의 모든 돌봄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며, 이 외에도 성평등의식, 연령, 학력 등이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의 근로시간이 양육에 영향을 미치는 통계적으로 가장 주요한 변인이며 근로시간이 길수록 아버지의 양육참여 확률이 낮아지며(조성호 · 김지민, 2018; 유지영, 2017) 근로시간이 양육에 영향을 미치는 통계적으로 가장 주요한 변인이라는 안수미 외(2013)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시장노동시간은 직장에서의 근무시간으로 아버지 본인의 의지로 쉽게 변경할 수 없는 부분이며, 근로시간 뿐 아니라, 야근, 회식 등 정해진 근로시간 외에 예상할 수 없는 추가의 시간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처럼 스스로 조절하기 힘들고 일정하지 않게 직장과 관련된 시간이 증가할수록 아버지가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의 양은 줄어들게 되고 자녀돌봄에 사용하는 시간도 함께 줄어든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아버지의 다른 조건을 통제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이 없을 경우, 자

녀돌봄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하며(유지영, 2017), 특히 미취학자녀의 경우 취침시간이 이르고 기상시간이 늦은 발달적 특성으로 인해 아버지가 이른 출근을 하고 늦은 퇴근을 한다면 어린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 자체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 또한, 노동시간과 출퇴근시간은 아버지가 스스로 조절하기 힘들고 생계유지를 위해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인 만큼 직장의 근무여건 융통성, 직장 내 가족친화적 문화의 정착 등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결과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여러 선행연구(김주경 · 윤지용 · 이준근, 2012; 장보성 · 남영준 · 이준기, 2014; 채화영 · 이기영, 2013)를 통해 밝혀진 바와 같이, 아버지의 시장노동시간이 자녀양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아버지의 자녀돌봄시간이 평일 늦은 저녁시간과 주말에 집중되어 있음은 직장 내 근무유연제나 육아기 단축근무 등을 적극 사용할 수 있는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성평등의식이 높은 경우 자녀돌봄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은 선행연구(박선주 · 강민주, 2017; Bulanda, 2004)를 통해 예측된 결과로 최근까지도 영향력이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맞벌이 아버지의 경우 꾸준히 성평등의식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밝혀지고 있으나, 2019년 자료분석에서는 발달돌봄에만 영향을 미쳤다. 2014년까지의 결과를 보면 성평등의식이 높은 사람이 자녀돌봄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였고, 2014년에는 성평등의식이 높은 사람이 필수돌봄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였으나, 필수돌봄시간이 발달돌봄시간보다 길어진 2019년에는 성평등의식 변수의 영향이 더는 유의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맞벌이 가정의 경우 성별에 따른 분업을 하여 필수돌봄은 어머니의 몫이라고 여기기보다 어린자녀에게 중요한 필수돌봄에 대한 아버지의 참여가 더욱 적극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외벌이 아버지의 경우 성평등의식이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중요한 변인으로 확인되고 있고, 맞벌이 아버지에 비해 자녀돌봄에 참여하는 시간이 적고 숙련과 양육책임이 요구되는 필수돌봄보다는 일시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이 강한 발달돌봄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어, 성별에 따라 부부간 업무를 담당하는 성역할 이론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외벌이 아버지의 자녀돌봄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성평등의식이 밝혀졌듯이, 아버지의 양육에 대한 인식이 자녀돌봄에 참여도와 돌봄시간에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Mauer, Pleck & Rane(2001)에 의하면 아버지가 일차적 돌봄책임자를 어머니로 인식하면, 자신의 돌봄참여는 미미하거나 이차적 역할만을 한다고 보았는데, 외벌이 가정은 자녀가 어머니와 보내는 시간이 길어 자연스럽게 양육의 일차적 책임자를 어머니로 인식하게 되고 그에 따라 자녀양육과 돌봄에 있어서 이차적인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도 높다. 그와 함께 아버지들은 여자인 어머니들이 선천적으로 아이를 잘 돌보기 때문에 어머니가 일차적 책임자가 되어야 한다며 양육의 책임을 어머니에게 돌리는 경우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처럼 아버지의 자녀돌봄참여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미취학자녀 아버지는 근무일에 자녀돌봄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관련된 논의이다. 본 연구에 의하면 자녀양육에 전혀 시간을 사용하지 않는 아버지가 2004년에 약 50%에서 2019년에는 맞벌이의 경우 약 30%, 외벌이의 경우 약 37%로 줄어들고 있지만 그렇다 해도 여전히 '부재형' 아버지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부재형 아버지는 자녀와 가정에 무관심하고 관여하지 않는 사람으로 이런 아버지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 자책하고 분노조절장애를 보이거나 이후 사사와의 관계에 어려움을 보이기도 하는 등(강봉국·강현구, 2013) 아버지의 자녀양육과 자녀돌봄에 참여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인생전반에 걸쳐 일어나는 만큼(이경숙·엄혜련·정영운, 2004; Parke & Brot, 1999)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에 대한 역할과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부모교육프로그램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프로그램의 내용도 변화할 필요가 있다. 부모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버지가 참여하지 않는 아버지보다 자녀와 놀이시간이 더 길고 자녀양육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었고,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더 많고 여가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으며 자녀의 학습 및 탐구활동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모습으로 변화하였음을 볼 때(양진희, 2015), 교육을 통해 아버지의 자녀돌봄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가능성이 확인되었으므로, 더 많은 아버지가 부모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시간과 집합교육 및 온라인 교육 등 교육형태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버지교육 내용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시행 중인 아버지 교육의 내용은 주로 신체적으로 놀아주기에 집중되어 있다. 물론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할 수 없다면 과도기적인 차선책으로 놀이활동을 통해 간헐적이지만 질적인 시간을 보내면서 아버지와 자녀 간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Lamb, 2000). 특히 어린 자녀와 자극적이고 활동적인 신체놀이는 현실적인 상황으로 인해 자녀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아버지들이 자녀들 삶 속에서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인물이 되는 중요한 도구일 수 있으나(Brachfeld-Child, 1986), 우선 부모로서 양육에 대한 책임을 갖도록 일차적인 양육자의 역할을 강조하여 아버지 인식의 변화를 유도하는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언하고자 한다.

둘째,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적 효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부부가 함께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맞벌이가정에서도 어머니를 주된 자녀돌봄 책임자로 여기는 경우가 많아 여성은 이중노동의 부담을 안고 있고(김나현 외, 2013; 이아름, 2021), 여전히 자녀돌봄에 있어 절대적인 시간량에서의 성차는 지속되고 있으나, 필수돌봄과 발달돌봄에서 나타난 아버지의 자녀돌봄 유형별 시간사용량의 변화를 통해 아버지돌봄에서 서서히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지점을 드

러낸다. 특히 자녀돌봄에 거의 참여하지 않으며 참여한다 하더라도 발달돌봄 참여에만 그치던 전통적 유형의 아버지돌봄의 특성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변화하여 최근 필수돌봄에 사용하는 시간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는 변화의 속도는 다소 더디다 해도 변화의 방향은 점차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참여가 균형을 이루어 자녀돌봄의 책임을 실질적으로 부모가 공평하게 분담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긍정적인 현상을 보여준다. 이는 지금까지의 가족친화적 정책의 시행과 성평등 교육 및 사회전반의 인식 변화 등에 따른 긍정적 효과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정확한 정책의 시행시기를 고려하여 장기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가족친화적 정책과제 개발 및 아버지 부모교육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아버지 양육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의 목표가 아버지의 자녀돌봄시간의 절대량의 증가에 있었다면, 향후 미래의 가족정책에는 부부의 자녀돌봄시간의 균형적 사용과 더불어 아버지가 어머니와 더불어 공동으로 돌봄의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맞벌이 여부에 따라 아버지의 자녀돌봄 구조에 차이가 있는 만큼, 각 가정의 다양한 요인, 즉 부모와 자녀의 연령, 자녀의 형제자매 존재 유무, 조부모의 돌봄 참여, 경제적 계층, 직장노동의 시간대, 자녀 자체의 건강상태 등 돌봄수요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아버지의 자녀돌봄시간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자녀돌봄의 변화나 양육유형의 변화, 부모간 자녀돌봄시간의 배분에 대해 파악하지는 않았으나, 이는 후속연구의 과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으로 올수록 출산자녀의 수가 감소하고 돌봄의 사회화가 증가하고 있는 변화를 고려하여 가정에서 부모에 의한 자녀돌봄 행태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통계청 생활시간조사의 자료조사와 관련하여 제언하고자 한다. 현재 수집되는 자료로는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른 부모의 자녀돌봄시간 사용과 참여행태를 파악하기 어렵다. 향후 자녀돌봄활동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자료 활용도가 더 향상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면서 자녀돌봄의 공백으로 인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고 그에 따라 아버지의 돌봄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에 팬데믹 상황에서 수행된 아버지의 자녀돌봄 유형별 사용시간과 참여율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본 연구와 같이 팬데믹 상황 이전의 자료를 비교분석할 것을 후속연구의 과제로 제언한다.

## 참고문헌

- 1) 강봉국·강현구(2013). 파더십, 북클라우드.
- 2) 강학중·유계숙(2005). 맞벌이 부부의 가사 및 자녀양육 분담에 관한 연구: 억제 및 촉진 요인을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17(3), 187-219.
- 3) 권인수(2013). 아동간호학에서의 아버지 자녀양육에 대한 연구 경향과 전망. 아동간호학회, 19(2), 69-75.
- 4) 김나영(2017). 맞벌이 부부의 자녀돌봄시간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 노동정책연구, 17(4), 31-54.
- 5) 김나현·이은주·곽수영·박미라(2013). 어린 아동을 둔 취업모의 양육부담감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9(3), 188-200.
- 6) 김상림·박창현(2016). 아버지 양육참여와 사회적 지지가 영아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 심리 특성의 매개효과.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7(3), 451-464.
- 7) 김상희·김지신·박응임·이사라·한세영·이주연·박선영·박민선·송승민(2018). 영유아발달, 파워북.
- 8) 김소영·진미정(2016). 영·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아버지 되어가기'.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2(3), 129-158.
- 9) 김순구(2002). 양육행동 개념 분석. 아동간호학회지, 8(4), 414-421.
- 10) 김영두·이대균(2011). 초보 아버지들의 양육특성과 아버지 지됨의 변화과정.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2(1), 353-380.
- 11) 김은수(2019). 부모공동양육과 유아 리더십 간의 관계에서 아버지 역할 신념의 매개효과.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2) 김은화(2011). 아버지와 영유아의 주말 놀이 공유 실태. 한국유아체육학회지, 12(2), 73-87.
- 13) 김주경·윤지용·이중근(2012). 우리나라 기능직공무원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요인 및 영향 분석. 사회과학연구, 38(1), 71-98.
- 14) 김진욱·권진(2017). 한국 기혼남성의 무급노동 시간에 대한 연구: 생활시간조사 1999-2014년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55, 181-215.
- 15) 김혜력(2013).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부모효능감이 유아의 놀이성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6) 김희화(2005). 아버지의 양육참여 실태 및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아버지 양육참여의 영향. 아동학회지, 26(5), 311-330.
- 17) 도금혜(2008). 청소년의 불안에 영향일 미치는 변인. 인간 발달연구, 15(3), 131-147.
- 18) 박선주·강민주(2017). 맞벌이 가정 아버지의 성역할태도와 어머니 문지기 역할이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에 미치는 영향. 육아정책연구, 11(3), 87-111.
- 19) 박성혜(2013).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유아 성별에 따른 리더십유형의 관계. 한국영유아교육학회, 17(4), 29-50.
- 20) 박연주(2001). 피학대 경험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1) 배호중(2015). 맞벌이 가구 남편의 가사노동시간. 사회과학연구, 31(4), 151-181.
- 22) 손문금(2005). 맞벌이 부부의 무급노동분담에 대한 실증적 연구. 페머니즘 연구, (5), 239-287.
- 23) 송유진(2011). 한국인의 일상생활 시간변화: 부모의 교육 수준에 따른 자녀양육시간. 한국인구학, 34(2), 45-64.
- 24) 송혜림·고선강·박정윤·권혜진·김유경·진미정(2010). 가족친화환경 측면에서 본 남성의 아버지역할 수행 실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4(4), 341-361.
- 25) 신명희·강소연·김은경·김정민·노원경·서은희·송수지·원영실·임호용(2018). 영유아발달. 학지사:서울.
- 26) 안수미·이기영·이승미(2013).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와 자녀양육시간.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7(2), 93-119.
- 27) 양진희(2015).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을 적용한 종단연구: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자녀가치,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 한국교육문제연구, 33(4), 303-327.
- 28) 연은모·최효식(2020). 아버지 양육참여 변화 유형에 따른 자녀의 문제행동 및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 차이 비교: 잠재계층성장모형 적용을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1(1), 468-476.
- 29) 오수진(2017).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 부부갈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30) 오정윤(2016). 빈곤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보육서비스 질 만족도와 양육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31) 유지영(2017). 책임성을 중심으로 본 남성들의 자녀양육 참여. 디지털융복합연구, 15(1), 45-61.
- 32) 이경숙·엄혜련·정영윤(2004). 잠재된 비행청소년의 애착유형(AAI)에 따른 아동기 양육경험과 문제행동.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3), 511-532.
- 33) 이아름(2021).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와 유아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어머니 우울과 자아존중감의 종단적 매개효과.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34) 이영환(2008).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부모 공동양육의 관점에서. 아동과 권리, 12(2), 189-210.
- 35) 이영환(2012).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녀양육 참여시간 비교. 아동과 권리, 16(3), 471-495.
- 36) 이학옥(1998). 아버지의 자녀양육 행동과 청소년기 자녀의 성역할정체감 및 자아존중감의 형성.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 논문.
- 37) 이현정(2004). 아버지의 양육태도 및 양육참여도가 아동의 자이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서울신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38) 장미나 · 한경혜(2011). 어린자녀를 둔 맞벌이부부들의 일상생활경험: 경험표집법(ESM)으로 살펴본 남녀의 일상시간 구성과 정서경험 비교. 가족과 문화, 23(1), 1-39.
- 39) 장보성 · 남영준 · 이준기(2014).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자원봉사자의 직무만족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5(1), 217-237.
- 40) 장영은(2016). 어머니 자기효능감, 우울 및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문제행동간의 관계. 가족과 문화, 28(4), 1-29.
- 41) 장혜경 · 홍승아 · 이상원 · 김영란 · 강은화 · 김고은(2006). 가족 내 돌봄노동 실태조사. 서울:한국여성개발원.
- 42) 정송희 · 전효정(2016). 어머니의 부정적 심리적 특성 및 양육 특성이 자녀의 또래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12-213.
- 43) 조성호 · 김지민(2018). 일 · 생활 균형을 위한 부부의 시간 배분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 44) 주은선 · 김사현 · 김민성(2014). 한국 부모의 미취학아동 돌봄시간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30(2), 367-400.
- 45) 차기주 · 김민정 · 정미라(2016). 영아기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영아발달 간의 관계: 어머니의 부모역할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영유아보육학, 99, 111-138.
- 46) 채화영 · 이기영(2013). 육아기 맞벌이 남성의 일, 가정 양립 경험.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1(5), 497-511.
- 47) 최경순(1992).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참여도와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48) 최세실(2016). 유아의 기질과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49) 최지은 · 김현경(2019).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아버지의 신체적 · 정신적 적응: 생활시간조사와 한국아동패널을 이용한 시대, 연령, 코호트 간 차이 분석. 한국사회학, 53(3), 1-41.
- 50) 한준아 · 조윤주 · 김지현(2014). 유아의 외현적 공격성 및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유아의 성, 기질, 정서조절능력,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23(4), 525-544.
- 51) 황순영 · 정영숙 · 우수경(2005).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역할만족도 및 유아의 사회적 능력. 한국생활과학회지, 14(4), 521-529.
- 52) 허은(2014). 아버지의 아동권리 인식이 양육참여에 미치는 영향과 양육태도의 매개효과.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53) Ahn, S. M., Lee, K. Y. & Lee, S. M.(2013). Fathers' parenting participation and time. Journal of Family Resource Management, 17(2), 93-119.
- 54) Allen, S. & Daly, K.(2007). Effects of father involvement: An updated research summary of the evidence. Centre for Families. Word & Well-Being. University of Guelph, Ontario, Canada.
- 55) Altintas, E.(2015). Educational differences in fathers' time with children in two parent families: Time diary evidence from the United States. Family Science, 6(1), 1-9.
- 56) Benzie, K. M., Harrison, M. J. & Magill-Evans, J.(2004). Parenting stress, marital quality, and child behavior problems at age 7 years. Public Health Nursing, 21(2), 111-121.
- 57) Bonke, J. & Esping-Andersen, G.(2009). Parental Investments in Children: How Educational Homogamy and Bargaining Affect Time Allocation. European Sociology Review 10 (20),1-13.
- 58) Brachfeld-Child, S.(1986). Parents as teachers: Comparisons of mothers' and fathers' instructional interactions with infants.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9(2):127-131.
- 59) Bulanda, R. E.(2004). Paternal Involvement with Children: The Influence of Gender Ideolog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6(1), 40-45.
- 60) Craig, L.(2006). Parental education, time in work and time with children An Australian time-diary analysis.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57(4), 553-575.
- 61) Eisenberg, N., Fabes, R. A. & Spinrad, T. L.(2006). andbook of Child Psychology. New York: Wiley.
- 62) Esping-Andersen, G.(2009). Incomplete Revolution: Adapting Welfare States to Women's New Roles. Cambridge: Polity.
- 63) Feinberg, M. E.(2003). The Internal Structure and Ecological Context of Coparenting: A Framework for Research and intervention. Parenting-Mahwah-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3(2), 95-131.
- 64) Gershuny, J.(2000) Changing times: Work and leisure in postindustrial socie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65) Gimenez-Nadal, J. & Molina, I.(2013). Parents' education as a determinant of educational child care time.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26(2), 719-749.
- 66) Guryan, J., Hurst, E. & Kearney, M.(2008). Parental Education and Parental Time with Children.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2(3), 23-46.
- 67) Hooper, S. R. & Umansky, W.(2004). Young children with special needs(4th ed.). Upper Saddle River, NJ:

- Pearson/Merrill Prentice Hall.
- 68) Jackson, A. P., Brooks-Gunn, J., Huang, C. & Glassman, M.(2000). Single mothers in low-wage jobs: Financial strain, parenting, and preschoolers' outcomes. *Child development*, 71(5), 1409-1423.
- 69) Kalil, A., Ryan, R. & Corey, M.(2012). Diverging Destinies Maternal Education and the Developmental Gradient in Time With Children. *Demography*, 49(4), 1361-1383.
- 70) Kim, P., Rigo, P., Mayes, L. C., Feldman, R., Leckman, J. F. & Swain, J. E.(2014). Neural plasticity in fathers of human infants. *Social Neuroscience*, 9(5), 522-535.
- 71) Lamb, M.E.(1981). The Role of Father in Child Development. 김광웅 · 박성연 역(1995), 아버지역할과 아동발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72) Lamb, M.E., Pleck, J. H., Charnov, E. L. & Levine, J.A. (1987). A biosocial perspective on parental behavior and involvement. *Parenting across the life span: Biosocial dimensions*, 111-142.
- 73) Lamb, M.E.(2000). "The History of Research on Father Involvement: An Overview." *Marriage & Family Review*, 29(2-3): 23-42.
- 74) Mangelsdorf, S. C., Laxman, D. J. & Jessee, A.(2011). *Coparenting in two-parent nuclear families*.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y Association.
- 75) Margolin, G., Gordis, E. B. & John, R. S.(2001). Coparenting: A Link Between Marital Conflict and Parenting in Two-Parent Famili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5(1), 3-21.
- 76) Mauer, T.W., Pleck, J.H. & Rane, T.R.(2001). Parental identity and reflected-appraisals: Measurement and gender dynamic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3(2), 309-321.
- 77) Parke, R.D. & Brott, A.A.(1999). Throwaway Dads: the myths and barriers that keep men from being the fathers they want to be. 박형신 · 이진희 역(2010), 나쁜 아빠, 이 학사.
- 78) Sayer, L. C. (2005). Gender, time and inequality: Trends in women's and men's paid work, unpaid work and free time. *Social Forces*, 84(1), 285-303.
- 79) Sayer, Liana C., Bianchi, Suzanne M. & Robinson, John P. (2004). Are parents investing less in children Trends in mothers' and fathers' time with children.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10(1), 1-43.
- 80) Schoppe-Sullivan, S.J., Brown, G.L., Cannon, E.A., Mangelsdorf, S. C. & Sokolowski, M.W.(2008). Maternal gatekeeping, coparenting quality, and fathering behavior in families within fant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2(3), 389-398.
- 81) Van Egeren, L.A. & Hawkins, D.P.(2004). Coming to terms with coparenting: Implications of definition and measurement. *Journal of Adult Development*, 11(3), 165-179.
- 82) Zick, Bryant & Österbacka.(2001). Mothers' Employment, Parental Involvement, and the Implications for Intermediate Child Outcomes. *Social Science Research*, 30(1), 25-49.

- 투 고 일 : 2021년 06월 15일
- 심 사 일 : 2021년 07월 12일
- 계 재 확 정 일 : 2021년 08월 17일